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대피공간 | 완강기 | 하향식 피난구 | 경량구조칸막이 | 옥상대피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00. 공동주택 화재발생 현황

공동주택 화재발생 현황

자료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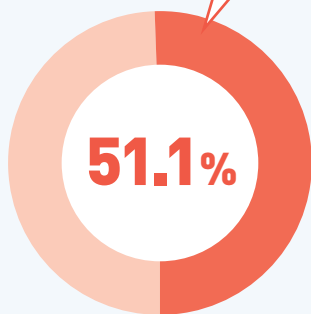
연 도	화재건수(건)	합 계(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2020	4,719	560	74	486
2019	4,837	512	54	458
2018	5,272	539	65	474
2017	4,869	417	62	355
2016	4,907	382	53	329



공동주택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화재 사고 피해 증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 피난 설비 사용법 이해 필요**

공동주택 거주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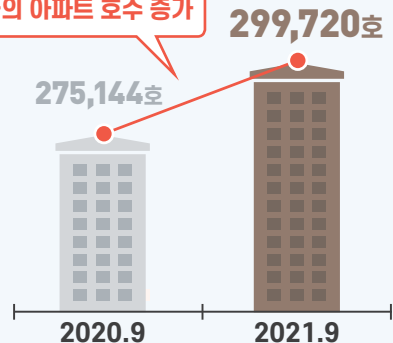
국민의 절반 이상 거주



2021년 1월 기준

공동주택 착공 현황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
전국의 아파트 호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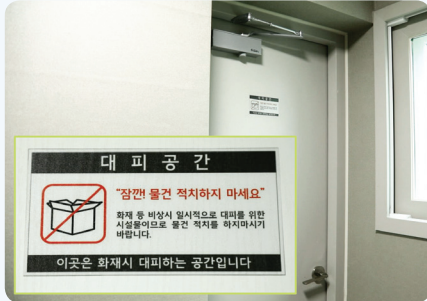


2021년 9월 기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



01. 대피공간



**출입문은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m² 이상의 공간**

***방화문** : 열,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문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대피방법

⬆ **상단의 QR코드를 확인하세요.**

1. 화재 시 피난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

2. 건물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시 대피공간으로 피난

※ 대피공간에 설치된 피난설비를 활용하여 대피하거나 구조를 기다립니다.

☑ 대피공간이 없는 공동주택

- 발코니에 경량구조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 발코니 등에 피난기구(완강기 등)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주의사항



화재발생시 가족 모두가 피난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두기!
선반을 만들어 짐을 쌓아두거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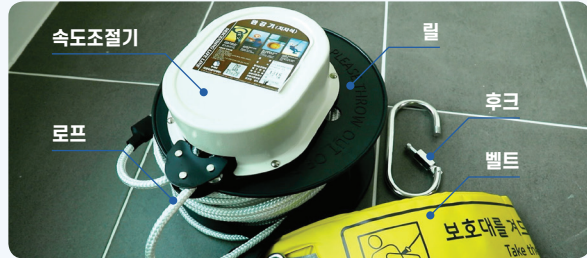


02. 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 기구

※ 연속사용 가능



완강기 사용법

↑ 상단의 QR코드를 확인하세요.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인다.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걸고
안전고리를 조인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위치한다.



릴을 창 밖으로 놓는다.



두 손으로 조절기 바로 밑의 로프
2개를 잡고 창틀에 걸터앉는다.



얼굴이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온다.

⚠ 주의사항

최대 하중 150kg으로 2명 이상 사용 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



03. 하향식 피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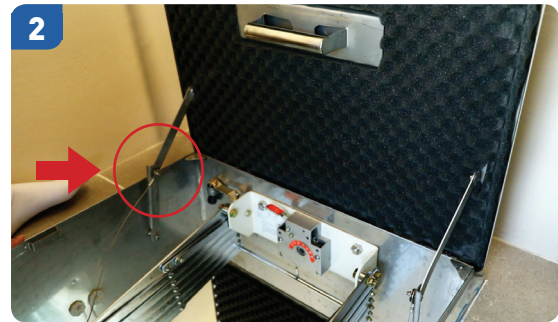
- ☑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
-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

하향식 피난구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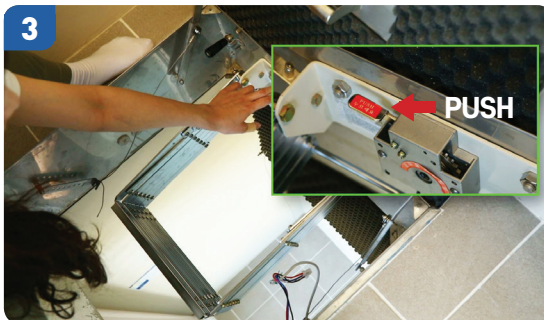
⬆️ 상단의 QR코드를 확인하세요.



하향식 피난구 덮개의 열림방지장치 분리



덮개를 완전히 열고 덮개의 관절을 밀어서 덮개 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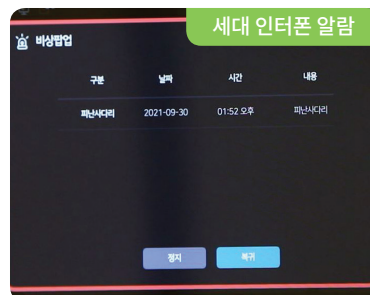
사다리 고정 장치를 눌러 사다리 펼치기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

! 경보음 발생!

-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해당 층과 아래층 세대, 경비실, 관리실 등에서 경보음 발생하여 보안, 안전사고 예방





04. 경량구조칸막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 약 9mm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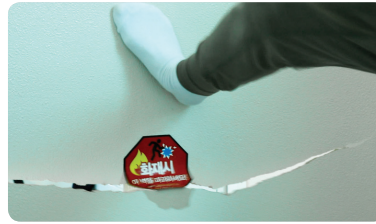
1992년 10월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세대간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 의무화

경량칸막이 사용법

안정된 자세로 발, 무릎 등을 사용하여
파괴 후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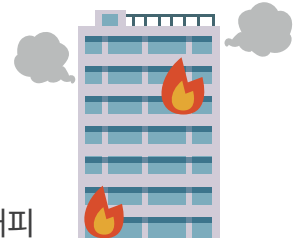
신체적 약자를 위해 망치 등 파괴 도구 비치

상단의 QR코드를 확인하세요.



대피 사례

- 2019. 9. 23. 전남 광양시 48층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44층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거주하던 30대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경량구조칸막이를 통해 이웃세대로 대피
- 2016. 2. 19.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7층 주방에서 화재 발생
아내와 3살 딸과 함께 가족 3명 경량구조칸막이를 통해 이웃세대로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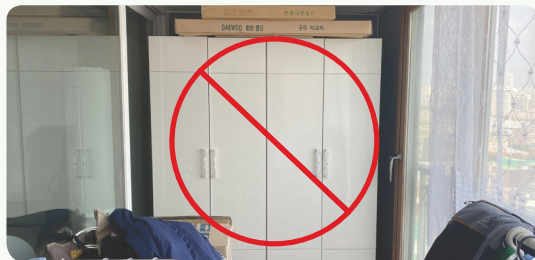


주의사항

경량구조칸막이 알림 스티커 부착



경량구조칸막이 앞 장애물 적치 금지



05. 옥상대피안내



- ✓ 화재 시 피난계단을 통해
건물밖으로 신속하게 대피
- ✓ 불가피한 경우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옥상으로 대피

평상시 확인사항

- 1 옥상 대피 경로 확인
- 2 옥상 대피공간의 출입문 위치 확인
- 3 옥상 대피 가능 여부 확인



옥상출입문
아 님

⊖ 최상층이 대피 공간이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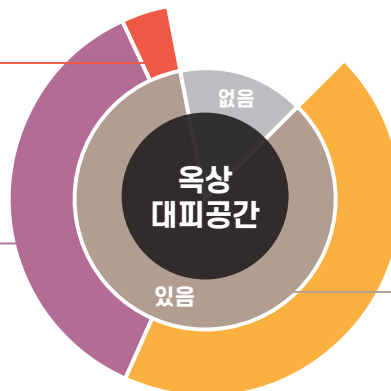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2월
- 대 상 : 경기도내 모든 아파트 6,618개 단지 41,621개동

자료출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최상층 2개층 아래층 등
기타 449개동(1.2%)

최상층 바로 아래층
15,549개동(44.3%)



옥상 출입문 위치가
최상층인 곳
19,126개동(54.5%)

35,124개동(84.4%)

✓ 사고사례

- 2020년 12월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거주하던 주민 2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던 중
옥상보다 한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 출입문으로 착각해 질식사 발생



화재에는 대피 먼저 안전에는 대비 먼저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